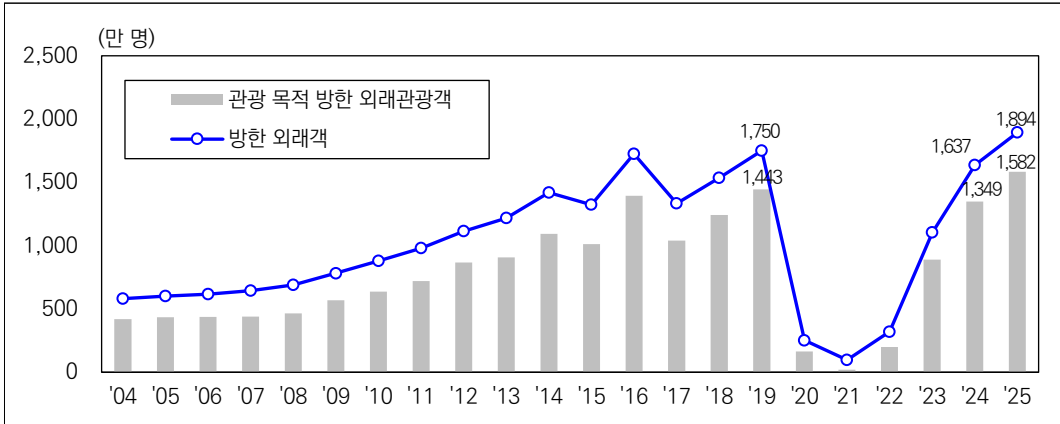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와 서비스업 고용 효과

○ 2025년 방한 외래객¹⁾은 약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이 중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1,582만 명으로 전체의 약 83.5%를 차지함.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00년대 초중반 약 400만 명대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이후 매년 천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17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외래관광객 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회복되어 코로나19 확산 직전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됨.
- 2020~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래관광객 수는 연간 20만~200만 명 수준까지 급감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24년 약 1,349만 명, 2025년에는 약 1,582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약 1,443만 명) 수준을 상회함.

[그림 1] 방한 외래객 및 관광 목적 방한 외래객 추이



주: 방한 외래객 = 외국인 총 입국자 -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 재외국민 입국자(교포) + 승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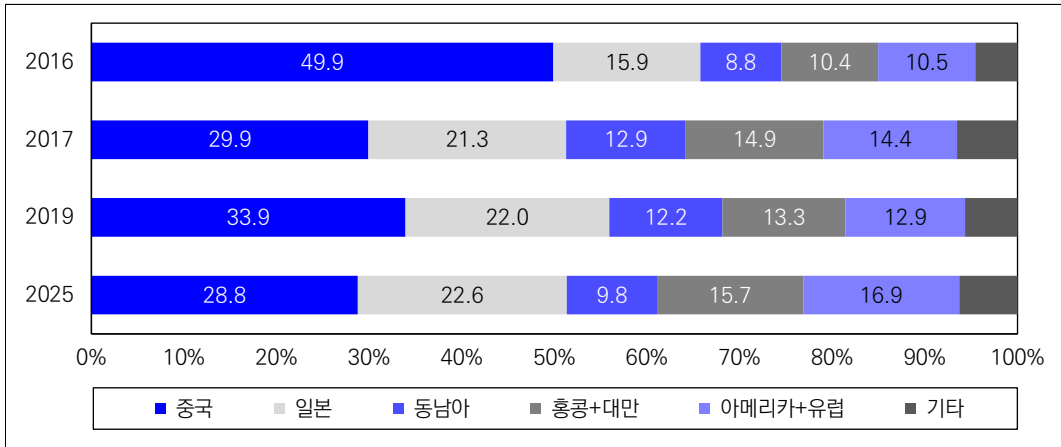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1) 방한 외래객은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사증면제+관광통과+단기종합+관광취업+관광상륙+의료관광)', '상용(단기상용+상사주재+기업투자+무역 경영)', '공용(공무+협정)', '유학연수(유학+일반연수)', '기타(승무원+관광·상용·공용·유학연수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로 구분됨.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 구성이 다양화되는 추세임.

- 2016년 전체의 약 50%에 달하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025년 28.8%로 하락한 반면, 일본 (15.9%→22.6%), 홍콩·대만(10.4%→15.7%), 미주·유럽(10.5%→16.9%) 등은 비중이 확대되며 국적 구성이 다변화됨.
-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다가, 2023년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임.²⁾
- 일본, 홍콩·대만, 미주·유럽 등 여타 국가의 관광객 증가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더불어 환율 여건, 출입국 제도 개선(K-ETA 면제, 비자 완화 등), 항공 노선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2] 지난 10년간 관광 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국가 구성 변화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외국인 관광소비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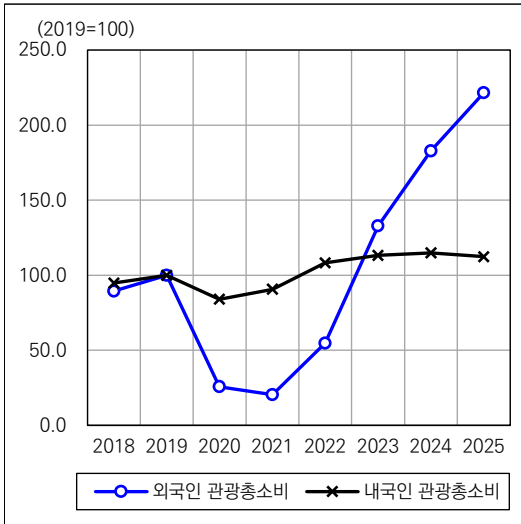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소비(신용카드 기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급감하였으나 202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약 7.9조 원에서 2025년 약 17.4조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확대됨.
- 외국인에 비해 규모가 큰 내국인 관광소비는 코로나19 기간 중 변동폭이 제한적이었으며, 이후 회복기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2019년 약 160.5조 원 → 2025년 약 180.3조 원, +12%).

2) 중국인 단체 관광은 2017년 사드 사태 영향으로 금지된 이후 2017년 말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전면 중단되었음. 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한국을 해외 단체관광 허용국에 포함시키면서 사드 사태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완전 재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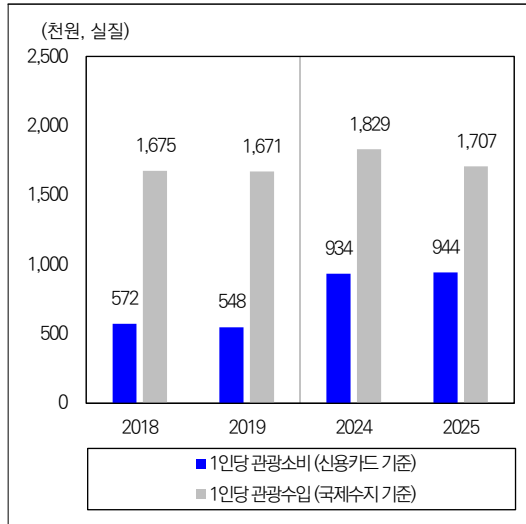
○ 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 지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증가함.

- 신용카드 기준 외국인 관광소비의 큰 증가폭에는 코로나19 이후 카드 사용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국제수지 기준 관광수입을 활용한 1인당 관광 지출을 산출하여 신용카드 기준과 비교함.
- 신용카드 기준 1인당 관광소비액은 2018~2019년 약 55만 원대에서 2024~2025년 약 94만 원대로 크게 증가함.
- 국제수지 기준 1인당 관광소비액은 2018~2019년 약 167만 원대에서 2024~2025년 170만~180만 원대로 소폭 증가함.
- 국제교통비 등 포함 범위 차이로 두 지표 간 수준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지표 모두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5년에는 두 지표 모두 1인당 지출이 전년대비 보합 또는 소폭 감소한 반면 관광객 수는 17.3% 증가하여 최근 외국인 관광소비액 확대에는 관광객 수 증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3] 내국인·외국인 관광소비액 추이



[그림 4] 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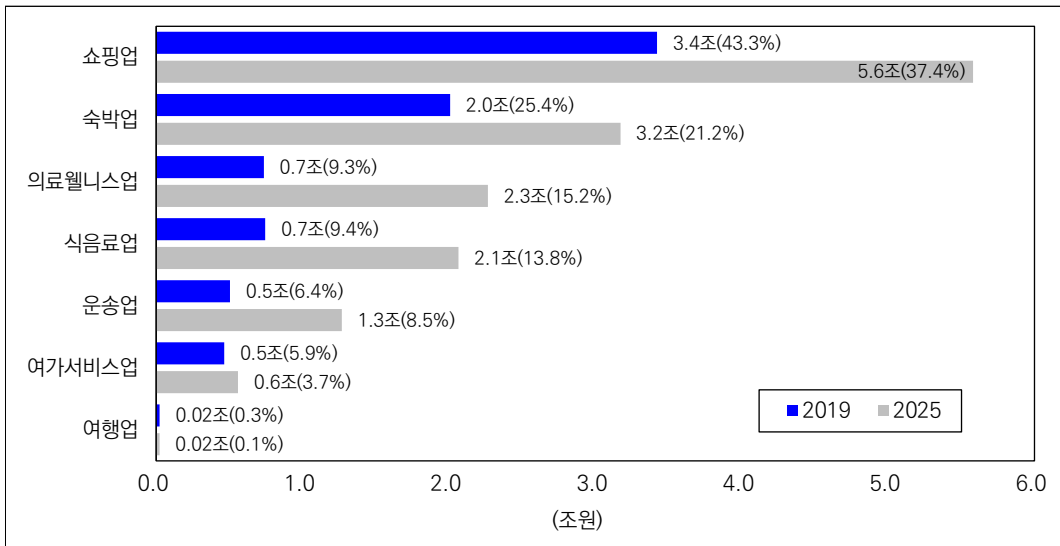
- 주 : 1) 외국인 관광소비는 관광과 명확하게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공공재, 공급재 등) 제외한 신용카드 기반 외국인의 관광소비액으로 오프라인 결제 외에도 관광 관련성이 높은 온라인 업종(이용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만)을 포함함.
 2) 1인당 관광소비 = 외국인 신용카드 관광총소비액 /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수입 = 국제수지 관광수입(일반여행수입) / 관광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3) 1인당 관광수입은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으며, 1인당 관광소비액과 1인당 관광수입 모두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4) 1인당 관광수입은 한국관광통계의 공식 산식(분모 :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수)과 달리 1인당 관광소비액과의 비교를 위해 분모를 관광 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수로 통일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 외국인 관광소비는 쇼핑업과 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식음료업의 비중이 확대됨.
 - 2025년 기준 외국인 관광소비(실질)는 총 약 14.9조 원으로, 업종별로는 쇼핑업 약 37.4%, 숙박업 약 21.2%, 의료웰니스업 약 15.2%, 식음료업 약 13.8%, 운송업 약 8.5%, 여가서비스업 약 3.7% 순임.
 - 2019년 대비 모든 업종에서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속도에 차이가 있어 식음료업(+4.4%p)과 운송업(+2.1%p)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쇼핑업과 숙박업은 비중이 다소 축소됨.
 - 쇼핑업 내에서는 면세점과 대형쇼핑몰이 약 59%, 숙박업에서는 호텔이 약 75%, 운송업에서는 항공운송이 약 63%, 여가서비스업에서는 카지노가 약 75%를 차지하는 등 업종 내에서도 대형 채널 중심의 소비 구조가 두드러짐.

[그림 5] 업종별 외국인 관광 소비 비중(실질 기준)

(단위: 조 원, %)



주: 1) 명목 외국인 관광총소비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관광소비는 외국인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2) () 안은 관광총소비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조사」.

- 방한 외래관광객이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래관광객의 증가는 관광 노출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 노출도를 외국인 관광소비액 중 해당 산업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이를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과의 교차항으로 활용하여 관광 노출도에 따른 고용 반응을 패널 국소투영법으로 분석함(구체적인 모형 설계 및 추정 방법은 <부록> 참조).
 -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 발생 후 약 3개월까지는 관광 관련 산업 임금근로자의 뚜렷한 반응

이 나타나지 않으나 약 4개월 이후 점진적으로 양(+의 반응이 나타나며, 9~10개월 무렵 가장 크게 나타남(그림 6 참조).

- 산업별로는 관광 노출도가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고용 반응이 나타나며, 6개월 시점 기준 누적 고용 반응은 도소매업 약 0.017, 숙박음식점업 약 0.015, 운수창고업 약 0.003, 예술·스포츠·여가 약 0.002 수준임(그림 7 참조).
 - 예를 들어 어떤 월에 방한 외래관광객이 전월 대비 약 10%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에 걸쳐 관광 노출도가 없는 산업 대비 도소매업에서 약 3,5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약 2,100명, 운수창고업에서 약 330명, 예술·스포츠·여가에서 약 80명으로 약 6,000명³⁾의 임금근로자 고용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이는 관광 노출도가 없는 산업 대비 추가적인 고용 반응만을 포착한 것이며,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효과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관광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적 고용 확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본 분석을 통해 확인됨.
- 관광 관련 산업 임금근로자의 고용 반응이 주로 상용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용직은 충격 발생 후 5개월 무렵부터 뚜렷한 양(+의 반응이 나타나 9개월 무렵 최고 수준에 이르는 반면, 임시·일용직은 전 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그림 8 참조).
 - 산업별 상용직 고용 반응 역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그림 9 참조).
 - 이러한 상용직 중심의 고용 반응은 외국인 관광 소비가 집중되는 사업체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 관광 소비는 면세점·대형 쇼핑몰, 호텔, 항공운송, 카지노 등 대형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체들은 상용직 비중이 높은 고용 구조를 지니고 있어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가 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됨.
- 20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은 약 39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지출액⁵⁾은 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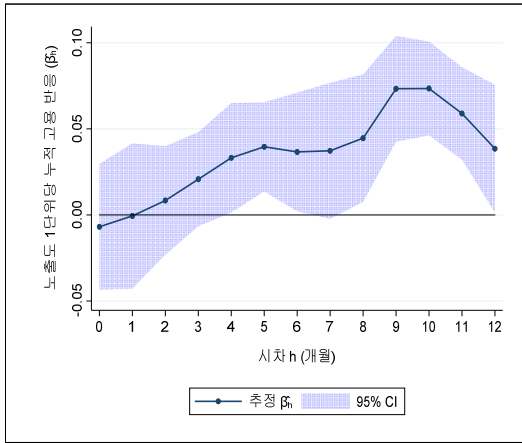
3)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예시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방한 외래관광객 변동에 따른 고용 효과는 충격의 크기·지속성 및 여타 요인에 따라 달라짐. 방한 외래관광객의 전월 대비 약 10% 증가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13만 명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산업별 추가 고용은 각 산업의 임금근로자 수(도소매업 약 209만 명, 숙박음식점업 약 144만 명 등)에 추정된 누적 고용 반응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4)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관광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73.3%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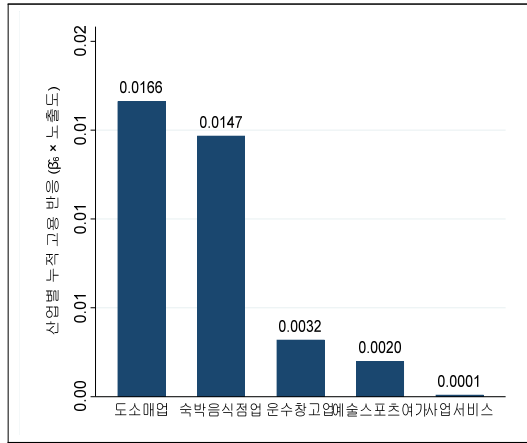
5)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신용카드 관광지출액 기준이며, 온라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는 관광 노출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상용직 고용 확대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서비스업 고용 규모 확대를 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고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LI]

[그림 6] 임금근로자 누적 고용 반응의 시차별 추이(I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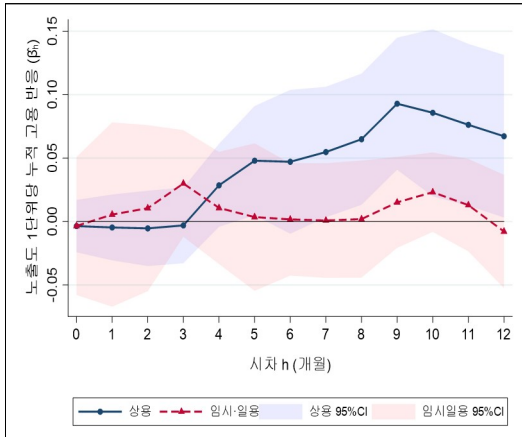
[그림 7] 산업별 임금근로자 누적 고용 반응(6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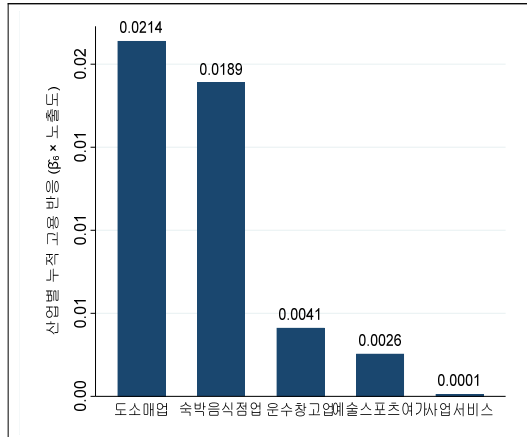
- 주: 1) 그림 6의 세로축은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로그차분 1) 발생 시 관광 노출도 1단위당 관광 관련 산업의 임금근로자 누적 고용 반응을 시차별로 보여줌.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2) 그림 7의 각 막대는 그림 6의 6개월 누적 고용 반응에 각 산업의 관광 노출도를 곱한 값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는 충격 발생 후 6개월 시점에서 제조업 대비 추가적인 산업별 고용 확대 규모를 의미함.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지위별 누적 고용 반응의 시차별 추이(IRF)



[그림 9] 산업별 상용직 누적 고용 반응(6개월 후)



- 주: 1) 그림 8의 세로축은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로그차분 1) 발생 시 관광 노출도 1단위당 관광 관련 산업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누적 고용 반응을 시차별로 보여줌.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2) 그림 9의 각 막대는 그림 8의 상용직 6개월 누적 고용 반응에 각 산업의 관광 노출도를 곱한 값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는 충격 발생 후 6개월 시점에서 제조업 대비 추가적인 산업별 상용직 고용 확대 규모를 의미함.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록〉 분석 방법

-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의 관광 노출도와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의 교차항을 활용한 패널 국소투영법(Panel Local Projection, LP)을 적용함.

(추정 모형)

충격 이후 시차 h에 따른 누적 고용 반응을 다음과 같이 시차별로 독립 추정

$$\Delta \ln EMP_{s,t+h} = \alpha_s + \tau_t + \beta_h (shock_t \times I_s) + \gamma X_{s,t} + \epsilon_{s,t+h}, \quad (h = 0, 1, \dots, 12)$$

단, $\Delta \ln EMP_{s,t+h}$ 는 누적 고용 변화(로그차분), $shock_t$ 는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 I_s 는 관광 노출도, α_s, τ_t 는 산업 및 시간 고정효과, $X_{s,t}$ 는 종속변수 시차항을 의미

- 분석 기간은 2004년 1월~2026년 3월까지,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 대분류별 임금근로자 자료를 활용함.
- 충격 변수는 관광 목적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월별 로그차분을, 관광 노출도는 외국인 관광소비 중 해당 산업의 비중을 사용함(단, 의료웰니스업은 방문 목적과 소비 패턴이 일반 관광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노출도 산출에서 제외함).
- 관광 노출도 산출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외국인 신용카드 관광소비액 중 해당 업종 비중(2018~2019 및 2023~2025년 평균) 자료를 이용했으며, 업종별 관광소비액을 산업대분류에 대응하여 도소매업 0.454, 숙박음식점업 0.401, 운수창고업 0.08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0.05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0.003, 제조업 0.000(통제군)으로 산출함.
- 방한 외래관광객 충격은 전 산업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시간 고정효과에 흡수되며, 산업별 노출도와의 교차항을 통해 산업 간 차별적 반응을 식별함. 추정 계수 β_h 는 관광 노출도가 없는 산업 대비 추가적 고용 반응을 의미함.
- (강건성 검증) 교차항의 1~2기 시차항을 추가 통제된 모형으로 재추정한 결과 기본 모형과 유사한 궤적을 확인하였음.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